

강령

-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학부모신문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
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발행인: 김완자 발행일: 매월 5일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22-1(2층) 전화: 전국 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서울 02-634-6508 02-634-4359 (FAX: 634-4359) 청주 0341-52-9541 (FAX: 0431-55-0354)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 051-246-1628)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광주 062-526-6992 (FAX: 062-529-1552) 마창 0551-48-6264 (FAX: 0551-43-6496) 대구 053-781-3911 동해 0394-33-7784 익산 0653-856-0340 울산 0522-46-0677 여천 0662-84-5116

회장인사

새해를 맞으며



또 다시 새해는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 학부모 단체로 출발한 우리는 광복 50주년을 넘기면서 5.31 교육개혁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를 대변하는 전국적 압력단체로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조금은 거창한 말 같으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디 그것이 하루 아침에 쉽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교육개혁 요구는 7년전 학부모회가 출발한 때부터 시작하여 지난 해에야 빛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사람 한사람의 자신을 태우는 작은 불씨가 모여야하고, 오랜기간 동안을 꾸준히 인내하며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5년도를 돌이켜보면 입시부활저지, 급식시설 공약화, GNP 5% 확보 등은 우리들의 커다

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솔직히 그동안 우리는 가능한 것보다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 가슴답답함과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학부모회가 창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내가 교육개혁을 외쳤고 교육민주화와 학부모의 권리를 찾는데 앞장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이 분명하고 그 운동의 내용중에는 나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그것이 저 개인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신 것입니다.

9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참여한 민주주의를 경험했습니다. 올해에도 개혁적이고 능력있는 인물을 선택해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를 앞당기는데 적극 참여하십시오.

96년은 여러가지 정치상황들의 전개로 보아 교육문제가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산에 젖었다가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처럼, 숨가쁘게 움직였던 지난 해를 정리하면서 교육개혁안이 내놓은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올해에는 큰 쟁점보다는 학부모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보편적인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 나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각 지회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여러 회원님과 사무처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학교 명칭변경
전국5천7백72개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뀐다.

▲만5세 어린이 취학 가능
학부모가 원하고 학급당 인원이 39명이하일 때 초등학교에서 남는 자리가 있을 경우 생년월일 순으로 조기입학이 가능하다.

▲속진제 시행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은 초등학교에서 1회, 중·고교를 합해 1회 등 2차례까지 조기 진급하거나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종합생활기록부 시행
초·중·고교 전학년에서 현행 등급제가 폐지되고 과목별 성적과 특별활동, 봉사활동, 수상경력 등을 적는 종합생활기록부가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활동
총점석차가 사라지고 과목별 계열석차가 백분율로 표기되어 과목별 강약점을 한 눈에 알게 하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도 문장으로 서술된다.

또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뀌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시험은 주관식이 30%이상을 차지하고

문항 수를 늘리고 문항당 배점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또 수업에만 열심히 참가하면 최소한 이상이 보장되는 실기평가 최소제가 도입된다.

▲특별활동
클럽활동은 물론 학급, 학교, 단체활동이 담당교사에 의해 누가 기록된 뒤 학년말에 담임에게 넘겨져 특별활동 사항으로 기재된다.

▲봉사활동
일시, 시간, 장소, 내용이 적힌 누가기록을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학년말에 같은 종류의 활동 내용별로 활동시간, 횟수가 각각 합산 기록된다. 교사의 자의적 평가와 기록은 금지된다.

▲행동발달사항
부정적 내용이 많은 학생의 경우도 반드시 앞부분에는 긍정적 내용을 쓰고 뒷부분에 고쳐야 할 행동내용을 기재하며 수 상실적 등도 쓸 수 있다.

▲출석
결혼, 회갑, 사망, 탈상의 경우 해당되는 촌수의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한 결석은 결석일수에서 제외된다. 그밖에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참작이 된다.

주요기사

3면 윤철경 자문위원 글

4면 지방교육지치법

5면 자녀 성교육, 첫아이 중학교 보내기

7면 자녀와의 대화법



예술성 높은 세계적 명성의 어린이 책들

마루벌의

CD롬에 버금가는 새로운 어린이 책과 (지식의 뿌리), 유아를 위한 철학 교과서 (철학 그림책) 등, 도서출판 마루벌은 한국 아동출판의 새 장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책

아름다운이야기(4세부터)

1. 엘로이즈와 늑대
2. 비람기비 이가씨의 신부복
3. 꼬마곰의 외출
4. 분홍빛 새끼늑대
5. 임금님의 건강을 위하여
6. 로보트가 나왔어요
7. 두더지 부부 소동
8. 높은 산의 거인 가족
9. 발을 땀은 아이
10. 아까 아까, 착해져라!



지식의 뿌리 (6세부터)

1. 살아 있는 우주
 2. 재미있는 미술 여행
 3. 인류의 은인, 불
 4. 음악, 인간의 오랜 친구
- 만져 보고, 조작해 보고, 느껴 보는 새로운 어린이 백과. '96년 5월 2차분 8권 발간. 총 40권 발간 예정. 난권 15,000원



필레꽃을타리 (6세부터)

- 봄 이야기
 - 여름 이야기
 - 가을 이야기
 - 겨울 이야기
-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사계절 그림책으로 세계 13개국에서 출간된 현대 그림책의 고전. 어린이도서연구회, 색동회 김수남 회장 추천 도서. 전4권/난권 6,800원



마루벌의 좋은그림책 (4세부터)

- 행복한 왕자
 - 신인장 호텔
 - 나무늘보야 해엄쳐
 - 사랑에 빠진 개구리
 - 얼마 어디 있어요
 -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 문화성과 예술성이 있고 우리 아이들 정서에 맞는 세계의 그림책들



철학그림책 (4세부터)

- 문이
 - 사냥물 저쪽
 - 빨간 아기토끼
- 어린이 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입양, 전쟁, 운명 등의 깊이 있는 문제를 아름답고 쉽게 엮은 그림책 전3권/난권 5,500원



꼭신독신이야기그림책 (1세부터)

- 아기곰 두리
 - 아기팬권 빵고
 - 아기코끼리 부바
 - 아기다람쥐 띠띠
- 아기동물들의 성장 이야기를 통해 아기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그림책 전4권/난권 6,000원



■ 참교육학부모회에서 마루벌의 책을 구입하시면 그 수익금은 본 학부모회 사업에 사용됩니다. (Tel 02-675-9608)
■ 1월 까지 마루벌의 어린이 책 한 종을 세트로 구입하시면 예쁜 '96년도 마루벌의 어린이 달력'을 증정합니다.
도서출판 마루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7가 40-6 Tel 02-701-2390 Fax 701-2395

마루벌 publications

사 설

아이들의 밝은 미래 위한 힘찬 발걸음

새해가 밝았다.

새해의 아침이 오면 우리는 또 어느 해처럼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의 내일을 설계하게 된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역사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이어진 5.18 광주항쟁에 대한 바른 역사적 평가, 그리고 12.12 군부쿠데타의 규명을 통한 5·6공 청산작업이 새해들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불과 얼마전만해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권력찬탈을 위해 수많은 광주양민을 대검으로 죽이고 총을 쏘게 만들었으며, 광주의 이런 아프고 처절한 역사를 외면할 수 없어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이 땅의 젊은 이들을 감옥에 보내고 때로는 정신병자가 될 만큼 참혹히 고문하도록 명령했던 무한권력의 소유자들이 오늘 지금,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역사는 우리가 결코 우리 현대사에서 잊어 버릴래야 잊을 수 없는 광주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사회 한 구석에는 공권력에 의해 타살된 노점상인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수배되어 도망쳐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그리고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다가 감옥에 갈 수 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이 있지만, 그래도 정의를 향한 거대한 물줄기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

이런 역사적 전환기에서 새해 벽두부터 대학입시가 시작되고 있다. 모든 교육목표가 오직 대학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언론은 온통 입시이다. 입시의 중압감아래서 아이들은 어제 오늘도 얼마나 짓눌리고 있는가. 몇년 전만해도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던 학원뽕뽕이가 이제는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유아들에게조차 무섭게 번지고 있다. 대학본고사 준비로 허덕이는 형과 누나들 아래, 이제는 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수능시험준비를 위해 전과목을 챙기느라 끔찍대는 아우들이 있다.

지난 한 해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되고 우리 학부모들은 한때나마 사교육비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나 기대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옴아매는 교육현실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고 체념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가스 폭발사건이 터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해 수백명이 한순간에 죽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속에서도 역사가 바른 방향을 잡아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쁨이 있는 한, 오늘의 우울한 교육현실 역시 희망의 내일로 향해 갈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맘껏 뛰놀 수 있는 동심의 나날을 돌려주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부단히 계속되어야 한다. 올해는 역시 지난 해에 이어 교육개혁안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후속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참교육학부모회에 주어진 과제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월의 정기대의원대회를 거쳐 지난 해 열심히 벌여 왔던 사업들을 평가하고 새해의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역사의 진보에는 이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와 눈물, 부단한 노력이 함께 있었음을 느끼며,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학부모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회원 여러분의 참교육 학부모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기대한다.

'96 겨울연수 및 대의원대회

5.31 교육개혁안 발표와 더불어 고교 입시부활 저지, 학교급식실시 조례제정 운동 등 다사다난했던 95년을 돌아보며 96년을 힘차게 출발하기 위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의원대회가 1월 11, 12일 양일간 대전 카톨릭 농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11일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교육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지역운동과 교육운동의 결합'이라는 주제의 강연회로 행사를 시작한다. 이어 본회의 95년 연대사업과 여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었던 공개강좌를 비롯한 95년 하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96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다. 또한 전국적인 조직으로 굳건히 서기위한 조직개편안과 정관개정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12일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난 2년간 열심히 활동해 온 김완자 전국회장에게 이어 앞으로 참교육 학부모회의 중심이 될 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인준을 한다.

인준될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오성숙(전국 회장) 양민숙(조직국장) 장은숙(문화국장) 박경수(총무국장) 송주비(출판국장)

초등학교 기말고사 내년폐지

교육부는 12월 3일,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덜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학기말 고사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현행 1년 두 차례의 학기말 고사를 폐지, 정기고

사를 아예 없애는 대신 수업내용을 시험관찰보고서나 실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중·고교의 경우 시험 횟수를 중간, 기말고사 등 학기당 2회로 한정토록 했다.

98년부터 외국대학 분교 허용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2월 8일, '고등교육부문의 대외 개방정책' 세미나를 열어 대학교육시장 개방 일정과 허용범위 등을 제시했다.

일정에 따르면 97년부터 외국대학이 어학 강좌, 대학원 석·박사과정, 단위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국내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98년부터는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을 허용하되 당분간 수도권에 1개, 각 시·도에 1개씩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일정에 따라 내년 중 교육법, 사립학교법,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학부모 만평

이숙자



병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회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학부모회와 함께 아이들이 살맛나는 세상, 학부모가 제자리를 찾는 참교육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학부모회에 끝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첫날부터 365일 내내 행복하십시오.

1996년 1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자문위원 새해인사

생명의 젖줄이 되리라



윤철경 <한국교육연구소 연구국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창립된 지 어언 8년째를 맞는다. 참교육의 열망 하나만 가지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을 헤쳐가며 한국 학부모운동의 신기원을 이룩해가고 있는 학부모회에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학부모의 권리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 사회에서 학부모의 억눌림과 안타까움, 분노와 슬픔을 대변하며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지금 보다는

좀 더 나은 교육, 다른 것도 아닌 최소한 상식에 입각한 교육을 받게 하고자 나선 것이다.

세계에서 유래없이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한국사회! 가족중심주의, 부족한 부존자원, 극심한 생존경쟁과 교육경쟁, 유교문화와 학력·학벌주의 등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결부되어 교육열이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있다. 교육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적인 테마 이면서도 가장 곤혹스럽고 고통스럽다.

우리들의 교육열은 자녀애와 성취욕구가 결합된 자녀성취욕이기에 무엇을 배우든 상관 없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열의 공공성이 대단히 낮고 사적 성격이 강해 이기적이기 십상이다. 학교사회에 만연된 촌지나 해가 지날수록 다양화, 고액화 되는 각종 과외가 다 이러한 교육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사회 교육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 교육열을 어떻게 바로 흘려가게 할 것인가에 있다. 교육열은 우리사회의 교

육적 에너지이다. 에너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원자폭탄도, 원자로도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 잠재된 교육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작동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삶과 사회에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평화의 교육이 될 수도 있으며 인간과 사회를 마멸시키는 핵폭탄적 교육이 될 수도 있다.

교육이 돈 놓고 돈 먹는 투기의 장이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 땅 덩어리를 사들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몇천억 씩 비자금을 주고 받던 그 사람들이 아니던가? 그 덕택에 집 값은 득달같이 오르고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한달 벌어 한달 사는 대다수 근로자들은 집 한칸 장만에 더 많은 땀과 피를 쏟지 않으면 안되었다.

교육 역시 투기장화 되고 있다. 수도 셀 수 없을 정도의 온갖 종류의 과외와 천차 만별의 과외비와 학원비, 부풀어가는 촌지액수. 교사든 학부모든 아이들은 '돈 값'을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돈으로 성공시킨 교육,

공동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살겠다고 한 교육이 그 부모와 그 사회에 비수를 겨눌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학부모의 교육열을 비난하면서도 그것을 활용해 학부모를 교육의 물주, 불모로 삼아온 학교와 정부당국의 책임은 없는가?

상식에 선 교육을 하려는 소수의 교육자, 이러한 교육을 지키려는 소수의 학부모들을 억압하고 내동미치며 조롱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러지 말자. 제동장치 망가진 고속열차가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충돌, 폭발하는 모습이 우리사회의 모습과 겹쳐지지 않는가?

이제 이 땅에 평화의 교육을 심자. 작은 것이지만 아끼고 가꾸자.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이 저리도록 소중한 일인가?

학부모회의 발원은 비록 미약했지만 그 노력이 거대한 강물이 되어 우리 사회를 풍성히 적시는 생명의 젖줄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 다시 한번 학부모회에 감사를 드린다.

<교육현장>

교사가 어린 여학생 성추행이라...

인천의 서구 신현북초등학교에서 한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이 학교 학부모와 인천시민이 시교육청과 학교의 미온적인 대책에 대해 비난이 빗발쳤다. 사건은 한 교사가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주변의 폭력실태를 조사하던 중 학교에서 가장 싫은 일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한 학생이 김모교사의 성추행을 밝힘으로써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담임교사와 피해 학생 학부모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무성의와 추행교사의 뻔뻔함이 전체 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을 일으켜 육성회장을 비롯한 피해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교사 1인과 학부모 2인이 참석하여 추행사례진술을 1200명(4~6학년) 학생들로부터 받은 진술내용은 인천시민을 경악케 하는 것이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행위를 어린이를 상대로 행한 추행은 대책위원회의 진정서와 고소로 교육청, 검찰에 각각 제출되었다.

참교육 학부모회 인천지부도 교육청에 이 학교 교장과 김모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시의회에서 홍미영의원은 교육감을 상대로 이 사건의 진상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였다.

피해 학부모들에 의하면 교육청과 학교측의 회유와 협박이 며칠간 계속되면서 협조하려는 학부모가 줄어들었고, 이러한 소문으로 어린 아이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친구가 모인 자리도 피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또한 학교주변을 다니는데 조심하거나 전화벨 소리에 놀라 두려움에 떨기도 한다고 한다.

"이번 일을 포기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교육청의 결과만을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라며 학교장과 김모교사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의 용기와 결단력만이 아이들이 힘을 갖고 성장단계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며 또 다른 학부모는 말하고 있다.

피해는 학부모만이 아니다. 이번 설문지를 돌린 교사 또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교육청의 보이지 않는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성추행사건이 전체교사의 위상을 추락시킨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를 회복하는 것이 사건을 은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극히 일부 교사에게 의해 저질러진 일을 전체교사의 이미지로 보는 것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교육자료와 지도를 위해 이용하고자 설문을 한 것은 교사의 권한이다.

따라서 명확한 사건의 진상 규명과 결과로 전체교사의 위상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사건이 확대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미 문서화 되어 제출된 고소장과 진정서로 인해 할 수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모습을 보여 사건해결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참교육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인천 여성의 전화, 인천 경실련, 여성노동자회, YWCA민간보육연합회, 가정법률상담소, 민정련과 연대하여 27, 28일 시의회와 교육위원회를 참관, 연대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인천시 검찰청에 진정서를 보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과 징계위원회가 열릴 즈음 전후로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그동안 학교와 교육청의 권위주의적인 풍토에 쐬기를 받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현북초등학교 대책위원회도 학교장과 김모교사의 파면을 끝까지 주시, 형사사건도 감수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인옥 기자>

<연극감상>

'직녀에게'를 보고

지난 12월 15일 토요일, 시험을 마친 아이들을 데리고 모처럼 동송동 대학로에 갔다. 맑은 햇살과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다, 여기저기서 나누끼는 연극현수막과 깃발들, 곳곳에 모여 노래부르는 사람들. 게다가 전철역 입구에서부터 나눠주는 연극할인권을 몇 장 받아 쥔 탓인지, 무슨 축제에라도 초대된 듯 아이들도 나도 기분이 붕 뜨는 것 같았다.

장소는 계단식 좌석으로 된 50~60 석 규모의 소극장이다. 그래서 무대와 객석 사이가 가까운 만큼 배우의 숨결이 그대로 전해졌다.

이 연극은 유화량씨의 장편소설 "노래"를 양정순씨가 각색하고 임진택씨가 연출을 맡은 서사극 형식을 취한 통일염원 연극이다.

시대의 변천은 슬라이드를 이용 굵직한 사건을 짚어보는 것으로 흐름을 엮었고 무대 전면에는 가시 철조망으로 막아놓은 철도가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문병란 작시 박문옥 작곡의 '직녀에게'를 제목 겸 주제곡으로 삼고 있다. 줄거리는 해방 후 미·소의 남북한 주둔 하에 강대국의 이해 관계로 분단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조국의 하나됨을 열망하는 음악가가 38선 근처에서 젓먹이 쌍둥이 딸(울과 현)을 남기고 눈을 감음으로써 시작된다. '현'과 '울'은 제각기 남과 북으로 헤어져 양부모에게 키워진다. 6.25를 겪고 휴전선이

국경선처럼 굳어진 분단의 현실 속에서, 남북의 적대감과 상호불신, 비방의 분위기 속에서도 양부모의 사랑속에 성장한 '현'과 '울'은 자기 성악과 바이얼린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그러나 그 재능을 펼쳐 주고 싶어도 '현'과 '울'의 양부모는 '간첩'과 '반동'으로 오인돼 경직된 체제의 수난을 당할 뿐이다.

이민을 가고 귀순을 하고, 이산가족이 되어서도 나라 밖에서라도 재회를 끊임없이 시도하나 주저하는 두 쌍둥이와 그 양부모들. 여기에 이르러서는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이념인가?'를 거듭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혈육'을 만나려 해도 '이데올로기의 사슬'에 묶여 미리 겁을 먹는 쌍둥이 자매. 바이얼린의현으로 '울'을 만들 듯 그들은 만나야만 하는데... '현'과 '울'의 여배우가 1인 2역으로 연기하는 그 의미처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 간절한 기원은 언제 쯤 이루어 질까?

막이 내릴 때 다같이 '직녀에게'를 합창하였다.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 통일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노래나마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해방 50년 분단50년이 무슨 기념행사의 일과성 주제로 취급되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서게 되는 원정의 좌표는 '한 핏줄' 그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한다.

조은경(모니터 팀)

☐교육관계법 개정 - ③지방교육자치법

교육위원 주민직선으로 위상 회복

교육개혁의 성공 교육자치로 일구어야

교육자치의 중요성

지방교육자치는 지역의 교육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자치행정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승패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육위원회는 독립적인 지방자치행정에서 국가의 통제하에 획일적인 지시만을 따르는 체제로 되어 있어 앞으로 지역교육은 시·도 교육청과 해당 교육위원이 학부모, 교사, 학생의 의견수렴과 협력으로 여건에 맞는 교육목표를 설정, 수립해야 하는 책무를 갖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교육위원 직선과 교육

지난 6.27선거 후 전국의 2기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보여주듯 이종간선제란 편리 속에 금품수수는 우리의 선거풍토와 관행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역 교육의 앞날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위원선출 방법으로는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위원 1/2선출(시·도의회가 1/2선출)과 2) 지역주민의 직선제 두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할 경우 교육의 전문성과 주민참여의 강화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의 내실화의 시발점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의 의견수렴이 지역의 의견수렴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 학교간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정착된 이후에나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지난 12월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있는 '전국 교육위원대회'는 교육위원의 직선제 선출을 가결시켰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직선제가 후보자의 난립을 우려하여, 자격요건 강화의견과 함께 교육시민단체의 참여로 전문성 및 시·도의회와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정치적 중립성을 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감 선출

현행 교육감 선출은 교육위원회에서 무등록 무추천 방법으로 선출하고 있다. 이 방법은 비공개로 이루어져 교육계의 적절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칠 수 없고 의결기관인 교

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청을 분리하는 기관분리의 기본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맹점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감을 선출한 청주의 경우처럼 교육위원 6명 중 4명이 교육감 후보로 나오는 양상을보여 교육위원선출처럼 교육감 선출도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의 개정이 절실하다.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방법의 개선은 위원들의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지역의 학부모, 교사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어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독단적인 행정을 막자는 의미가 더 크다.

고교평준화 해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인천은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지연·학연 이기주의가 부각되면 결코 지방교육자치를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심의기구로 명시된 현행 교육자치법은 조례의 제정·개정과 예산안, 결산 등 중요사항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권한 밖에 갖지 못한 '수입형 의결기구'에 불과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중요사항을 의결

할 수 있는 '독립형 기구'로 규정되어야 한다.

교육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지역교육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모를 정도로 교육자치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예가 없음을 볼 때 교육자치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의사수렴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교육자치의 최대 급선무라 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 예산 확보에 대한 의결권을 법적, 제도적인 보완 및 개선책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1기 교육위원이 그 동안 한일이 없었다는 오해를 불식시켜 지역의 교육자치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움직임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

95년 시범실시 후 97년 전면 실시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는 현재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학교발전기금, 운영기금 모금만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교육위원들은 부족한 교육재정이 어느 정도 학부모의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을 앞 둔 중·고교의 앞날도 교육개혁의 의지를 밝게

하고 있지 않다.

교육청으로부터 지시된 규약을 바탕으로 학교특성에 맞는 규약을 만드는 일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발전의 기초가 되는 학부모회, 교무회, 학생회의 역할이 크게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권리도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기존 육성회와 다를바가 없다.

지난 해 12월 교육개혁위원회(대통령자문기구)가 이들의 성격과 기능을 법률로 명시한다고 발표했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및 학생의 구성 방법과 기능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전체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이다.

지금까지 교육소비자로서 머물렀던 학생과 학부모가 국가의 편의제공의무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만이 아닌 적극적인 권리행사주체로서 앞서나갈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박인옥 기자〉

인터뷰

윤세환 인천 교육위원회 의장



지방교육자치의 성패는 교육위원이 독립적인 활동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있다. 고교입시부활을 제일 먼저 교육부에 건의한 인천 교육위원회 윤세환 의장을 찾아 교육자치의 중요성과 95년 교육위원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95년 인천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시민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풍토를

발견하여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의 교육자치는 밑에서 우러나는 상향적인 자치가 아니라 하향적입니다.

고교입시부활에 대한 교수, 학부모, 학생중심의 투표와 교육청단위의 학부모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 8:1정도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고교입시부활은 꼭 수월성을 고집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 수준에 맞는 집단교육과 질적인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현재는 선지원, 후추첨이란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상향적인 기구로 성장하려면 지금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데요.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의식도 이해가 되지만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영역이 활동비의 제약으로 때론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1기 4년동안 교육재정확보로 독립적인 활동영역을 가지려 했지

만 어렵했습니다. 그나마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회로부터 교부금 40억을 받고 있습니다. 법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시의회의 예속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뇌물수수선거로 인해 실추된 교육위원들의 위상정립을 위해 어떠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거의 70~80%가 뇌물로 선거유세를 했지만 당선자 모두를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여행도 2,3번씩 떠나는 국회의원에 비해 지금까지 1번 다녀왔습니다. 시민의 눈을 의식하여 자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교육탐방을 했을 때 우리의 교육환경과 비교되는 점이 있다면?

학 학급에 25명(초등)의 학생으로 완벽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여 학부모에게 통지, 진로를 결정할 때도 대부분의 학부모가 교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그것과

크게 비교됩니다. 유럽의 시민 의식바탕에는 직업관, 노동관이 확실한 것이지요.

교육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입장은?

구의회가 교육위원을 뽑는다면 구의원 역시 교육위원을 뽑을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파에 치우친 의원들의 선출이 교육위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착이 되면 여기서 교육위원을 추천, 선출하는 방안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착을 위한 교육위의 입장은?

의결기구화해야 합니다. 교장의 복수추천으로 리더쉽 있고 진정으로 지역교육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와 학부모 운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는 긍정적입니다. 특히 특별활동에 있어 전문교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능력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교육의 일부를 맡게된다면 바람직하지요.

또한 교육재정에 있어 교육부가 재정능력에 한계가 있는 한 학부모도 일정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96년 인천 교육위원회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영종도 교원연수원의 완공으로 교원재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있는 과학고 외에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부지선택의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부지가 결정되면 창의력과 실험을 위주로 하여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과학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자치 실현의 일환으로 시범실시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올바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기자〉

◆가족이 함께 하는 성 이야기(6)

남성과 여성 - 능력 함께 나누기



윤 양 현 <여성학자>

5) 남녀의 평등한 역할 의
히기

지구 상에 단 두 개 밖에 없는 성-남성과 여성, 이 남녀 관계가 상대방을 서로 다른 존재로 인정하거나 존중해 주기 보다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 때리고 맞는 관계, 벌어오고 쓰는 관계, 사고 팔리는 관계 등의 우열 관계로 지속되어 온 근본 배경이 성별분업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남성

영역과 여성 영역으로 역할이 분리되어 이는 곧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정치력으로 행사되어 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찬양한다 해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동물과 다를 바없는 인간의 단순성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에서 종종 나타나지요. 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이 보수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 봤자 그것은 입과 머리만의 논리일 뿐, 단지 몇푼이라도 돈으로 바꾸어 오는 남편의 노동에 매달려 산다는 심정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전업주부들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의 모성성이 인류를 살리는 힘이라고 아무리 강조해 봤자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들 앞에서 몸이 오그라들고 뇌세포가 정지될수 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여성들입니다.

힘의 논리, 돈의 논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힘과 돈을 거머쥔 남성과 그에 종속된 여성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지금 자라나는 우리 딸들은 머리엔 평등의식을 이고 몸은 남성의 전유물일 수 밖에 없는 기형아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 종말은 정신질환으로 치닫는 길 밖에 더 있겠습니까?

남녀간에 평등한 역할을 익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기본적인 성교육이 되겠습니다.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힘과 돈의 논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약해지고 주눅들려 왔던 단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가사노동, 자녀양육, 폭력을 부정하는 모성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의 원천들에 대해 남녀 모두가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가사일과 육아에 남편이 참여하고 사회활동(돈을 벌어 오

는 일만이 아닌)에 주부가 참여할 때 비로소 남성성과 여성성이 만나게 되고 그 결과 폭력보다는 대화, 돈보다는 함께 나누는 능력에서 보람과 가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평등의식에 익숙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가해자나 정신질환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바로 지금부터 우리 부부들간에 역할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가족이 함께 하는 성 이야기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사춘기 성교육
과정

- 1) 자기 몸에 금지 갖기
- 2) 2차성징
- 3) 이성교제에 대한 남녀 차이
- 4) 사랑 개념, 결혼의미
- 5)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만나요?
- 6) 자위행위
- 7)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들

어디까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부모의 성교육차세)

- 1) 적극적 자세:모든게 교육자료(드라마, 만화, 비디오, 뉴스 등에서 사회적현상들 설명: 강간, 성폭행, 성희롱, 외도, 매춘, 환각제와 술, 담배)
- 2) 딸과 아들에게 똑같은 내용물
- 3)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 추한모습
- 4)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 5) 부부관계는 성교육의 교과서

◆첫아이 중학교 보내기-(1)

입학 전 열린학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

김 두루한
<시흥고 교사,
중등열린교육연구회>

답하고자 합니다. 곧 사설학원의 중학예비반에 들어야 할까, 만약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란 물음이었습니.

사실 현장 교사인 저로서는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 중 학기제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이후 동회는 중학교 입학 때인 3월까지 거의 3달 동안 집을 놀고 지내게 되어 학부모로서는 사설학원의 중학예비반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할 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학부모가 한때 마음의 안정을 위해 자칫 중학 생활의 첫 걸음을 잘못 내딛는 수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학습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자율 능력을 길러야 할 시기에 오히려 남에게 매달리는 식의 학습태도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교육비를 따로 쓰면서까지 사설학원에서 중학교 사전 예비 학습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입학 전 열린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동회 스스로 앞으로 중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겠다는 뜻을 말해 보게 하는 일입니다. 그 방법으로 먼저 온 가족이

모여 동회가 지나 온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공책과 묶음(파일)을 준비하고 그동안 동회가 유치원(놀이방)이나 초등학교에서 지내 온 일을 점검하면서 격려의 말을 덧붙이는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 집 가족신문>을 동회가 편집장이 되어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동회 스스로가 앞으로 바람직한 삶을 가꾸겠다는 책임감을 일깨우고 남다른 성취의욕을 갖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뜻을 세운 만큼 좋은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하겠지요. 저로서는 며칠 전 동회가 교육 단체가 마련한 여행(캠프)에 간 것을 펴 바람직한 일로 여깁니다. 아울러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골의 친인척 집 찾기도 꼭 권합니다. 또 가까운 공공 도서관이나 책방(대여점)에서 동회가 읽어야 할 책을 함께 골라 보는 일입니다. 이때 동회가 알고 싶고, 재미있어 하는 분야를 두세가지 집중해서 고르도록 도와주면 스스로 진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두고두고 도움이 크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서울을 비롯한 곳

곳에 널려 있는 공공 박물관이나 각종 기념관(기념사업회)을 찾아서 사진도 찍고 여러 자료를 받아 정리해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거나 듣게 되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글읽기(독서)와 텔레비전, 라디오 중 유익한 기사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부모님과 함께 자료로 만들어 보고 그 내용을 읽고 난 감상 등을 열린 공책에 꾸준히 글쓰기로 남기면 어떨까요?

이처럼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과 '스스로 주인공이 공부하려는 마음 일깨우기'가 이른바 정보사회, 열린사회로 부르는 21세기를 살아갈 동회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좁고 닫힌 '입시 공부'를 벗어나 스스로 정보를 찾고 만들어 활용하는 살아있는 공부, 열린 학습(공부)으로 학생의 힘을 기르는 공부 말입니다.

아무쪼록 새로 한 해를 맞으며 온 나라 곳곳의 우리 교육 현장이 살이 숨 쉬는 배움터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중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
-1학년

도덕: 반갑다 논리야, 우리집 가족 신문, 철학은 내친구, 윤동주 평전, 지구를 살리는 50가지 방법

국어: 우리말의 나이를 아십니까, 선생님과 함께 읽는 우리 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책 시계 등불의 역사,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수학: 수학은 아름다워 1, 줄거운 365일 수학, 쉬는 시간에 읽는 수학공트, 수학의 세계 1,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사회: 교실 밖 지리 여행,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세계지리, 서울의 고궁 산책, 답사 여행의 길잡이, 먼 나라 이웃 나라

과학: 날새를 알면 내일이 보인다,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꽃 백가지, 파브르 식물기, 개미는 왜 힘이 셀까, 과학의 역사1

체육: 건강을 지키는 상식, 건강을 해치는 상식 120, 물과 건강, 내가 돌보는 건강 비결, 열 한 살 알퍼니스트가 준 선물

(다음호에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바른길을 찾기가 힘들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 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학부모들을 위해 현장에 계신 김 두루한 선생님의 도움글을 1년간 실는다.

보내신 편지는 잘 읽었습니다. 이제 그 편지에 적힌 다음 두 가지 물음에 대해 성의껏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22-1 2층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5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채택 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것은 우리손으로

상담원 교육을 마치고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또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치, 사회적으로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참사도 있었고, 막바지에 들어서는 비자금 정국부터 5.18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실로 숨가쁜 사회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꿈꿨던 상처를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관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는 듯합니다.

1년 동안 참교육 학부모회도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여러지회 - 서울 동북부지회, 청주지회, 여수지회 - 를 조직해 낸 것이 가장 큰 성과였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조직개편을 한 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부모 대상 사업들을 전개해 많은 신입회원들을 확보하고 학부모회를 더 널리 선전할 수 있었던 점 등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남부 지회 역시 작년에 비해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몇몇 적극적인 회원들의 참여 속에서 지회조직을 탄탄하게 꾸려낸 것은 물론이고, 지역연대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일반 학부모 회원들의 소극적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교육의 한 주체인 우리 학부모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만들어낸 단체입니다. 당연히 주인

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이 땅에 참교육을 하루빨리 뿌리내리게 하는 첩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동적으로 소식지와 신문만 받아보는 자세로 일관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친 얘기일지는 몰라도 학부모회를 통해 단 것만 삼키고 조금이라도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땐 과감히 외면해 버리는 이기심은 분명 우리 참교육 학부모회 회원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내 자녀의 문제 하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좀더 넓은 시각에서 긴 안목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초석을 닦는 일에 더 열심일 때 궁극적으로 참교육은 실천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육개혁안이 발표되고 몇몇 눈에 띄는 변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교육문제를 비롯, 사회 전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 다시 정체와 혼란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탄생 6년이 된 참교육 학부모회도 보다 성숙되고 전문화된 교육단체로 성장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주인임을 상기하고 나 스스로 열심히 참여하는 자세로 내년에는 더욱 알찬 활동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해를 보내면서 할 일이 많은 신 우리 학부모 회원님들, 대내외적으로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추위에 건강하시고 활기 찬 새해맞이 준비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이영미 (강서남부지회)

처음 상담 교육을 받으려고 생각한 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컴퓨터 조립판 매 사업을 정리하고 소규모 학원을 운영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 '상담'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떠올랐고, 내 주변 선배 부부 갈등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신청을 했다.

막상 교실에 들어서니 학생수도 적고 대부분 여성이어서 매우 당혹했다. 또 참교육 학부모회에서 구상하는 상담실 자원봉사자든가 학교 교육이나 문제아들에 대한 관심과 고민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내가 올 곳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킨 것은 아침에 뭔가 배우러 간다는 것 자체가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교실 앞에서는 항상 망설였다.

그러나 10회 교육을 받고 나서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 상담실 자원봉사에서는 물론, 모든 인간사에 특히 인간관계나 대화술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여기서 배운 것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다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고 점차 나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평화로울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동안 상담, 심리, 자녀교육들에 관한 책을 집중적으로 보았고 아내와 같이 아이들(7세, 5세 남자)과의 대화, 아내와의 대화에 적용하면서 곧바로 효험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내는 4~5년 전에 토마스 고든이 쓴 부모역할훈련이란 책을 접하고 크게 감명받아 놀이방 운영에 활용하여 그 효과를 익히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난 그것은 어린아이와의 관계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어른세계에 적용시킬 방법은 아니라고 무시하였다. 또 3~4년 전부터 한 선배로부터 '생산적인 대화방법'이라는 교육과 실습을 받으면서 남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감정을 읽으라는 얘기를 누차 들었다.

특히 나는 남의 얘기를 '경청'할 줄 모른다는 지적과 비판을 계속 받고 있

는 중이었다.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듣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 논리적인 대화를 하는데도 이런 방법은 대단히 유효하다는 얘기가, 대화에서 서로 지지않는 방법이 있다 또는 상대방이 설득당했다는 느낌이 없으면서도 내 주장에 동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나로서는 충격이면서 뭔가 깨달음에 가까운 회열을 주었던 것이다.

가까운 실례로 난 아내가 감정이 상해 침묵할 때 큰 소리를 치거나 논리적으로 내 주장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아부에 가까운 양보를 하거나 하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 최근 몇년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다.

우리, 너는 감정을 억제하고 또 남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아예 표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재빨리 판단하고 충고하도록 훈련/교육 받은 것 같다.

저마다 열등의식에 상처받고 있으면서 이것은 혼자서 극복하는 것이지 논리적인 대화, 아니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싸움에-대화도 싸움의 일종으로 보았다-지는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40년간의 습관-대화, 사고하는 방식들-을 쉽게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그 래도 바꾸겠다고 결심하고 아내와 함께 조금 전에 하던 대화를 놓고 '그 순간엔 이런 표현이 좋았겠다'라는 식으로 반성하고 격려하고 있으니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는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연히 선택한 상담교육이 나를 크게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한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며 내 주변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나또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해 본다.

유영호 (노원구 상계동)

미술 소모임을 하면서

아이:학교에 다녀 왔습니다.

엄마:그래, 빨리 밥 먹고 학원에 가라.

아이:... (중얼거리듯이) 학원에 다녀와서 뭐하지?

엄마:빨리 숙제하고 피아노 학원에 가야지.

아이:그럼, 난 언제 놀아요?

엄마:네가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아이:(침묵. 학원가방을 들고 총총 사라진다)

결혼 직후까지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 아이들 뒷바라지로 어느 덧 8년! '빨리'라는 말을 입버릇 처럼 외쳐대는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다. 큰 아이가 어릴 적에는 요즈음 처럼 조기교육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다.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다)

그냥 여러가지 운동으로 만족하고 자유로운 표현력으로 훗날 소양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주지를 못했었다. 그런데 올해로 학부형이 되고 보니 그나마 지켜 왔던 소신마저 조금씩 무너지고 초조해 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거리에 무수히 널려 있는 학원을 기웃거리게 되었고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도 안도감 때문에 학원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빨리'를 외치면서 아이를 학원으로 내몰지는 않는다. 막연하나마 참교육의 의미를 조금씩 알고부터일 것이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상계동 참교육 학부모 모임은 두달도 채 안되며 주된 교육은 미술이다. 처음에는 큰 아이의 교육비 지출이 엄청나서 작은 아이(4세)에게는 고작 일주일에 한번 가까운 문화센터를 가는 것 뿐이었다. 그즈음

소개를 받고 문을 두드려 본 참교육 학부모 모임은 썰렁한 공간에 어색한 분위기, 그것도 모자라서 생긴지 한달만에 장소 이전, 그야말로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나 혼자만이 느끼는 부르조아 사상인지 그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심한 감기몸살로 일주일에 한번 갖는 모임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때가 장소이전의 마지막날로 기억된다. 소홀히 생각해서인지 비상연락망마저 없는 나와 꼬맹이는 줄지에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또 한 주일이 시작되었지만 이전한 장소를 몰라서 참석하지 못했고 연락 역시 오지를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음속 한곳에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

이다. '연락이라도 주지...' 그 때 따르릉! 기다리던 연락이 온 것이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후 나의 모습을 뒤돌아 볼 수 있고 깨우침을 준 호된 감기를 고맙게 생각하며 분홍빛 작은 손으로 어설프게 그린 낙서도 존중되는 이 모임에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다.

엄마는 주제의 주제자로, 아이는 표현의 주체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참교육 학부모 모임이 밝아 오는 1996년 병자년의 기대만큼 환하길 소망해 본다.

김미숙(동북부지회)

◆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마지막회)

가치관의 갈등은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자녀와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연령 차이에서 오는 세대차, 부모 성장 시대의 사회적 배경, 지금 아이들의 여건, 사회 문화적 차이 등에서 오는 관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각, 종교, 배우자, 친구 선택, 정치, 정당의 선택, 의견제시 등의 자유에서부터 무엇을 입을 것인가,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사소한 일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간섭이나 강요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 자신의 생각, 취향, 가치관을 강요하는 일은 없는지요?

가령, 유치원 다니는 딸이 빨간 바지를 입고 싶어하는데 엄마는 '빨간 바지는 촌스럽다'며 엄마 취향대로 까만 바지를 강요하는 건 아닌지요?

요즈음 자녀들의 머리 모양이나 입성 등은 어른인 부모들의 눈으로 보면 못마땅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청바지를 찢어 입고 다닌다거나 머리에 가닥가닥 색색이 물을 들이거나 하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내 딸이나 아들이 그런 모양을 하고 다닌다면 아마도 집안은 분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자녀의 가치관이 부모와 달라서 갈등이 생길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소해 보기로 합니다.

1. 모델링 제시 : 아이가 평소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아이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 : 아이가 피아노를 그만 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사촌형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사촌형이 국민학교 때 피아노를 중단한 것이 후회된다고 하더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2. 의논하기 : 아이의 가치관에 대해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반증할만한 과학적이고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참고 하도록 합니다.

예 : 공부할 때 이어폰을 귀에 끼고 음악을 듣는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 어머니는 그런 행위가 왜 나쁜지 과학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가령 두뇌의 집중력은 어떤 상태에서 최고이며 방해 받을 때 능률이 어떻게 떨어지는가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아이에게 일러 줍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모의 자세는 그 자료를 제시할 뿐이지 선택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자기수정 : 가치관 갈등은 어느 한쪽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면 해소됩니다. 위 예의 경우 아이는 엄마가 제시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주장하면 어머니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요즈음 아이들의 달라진 문화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이 문제로 계속 싸워 봤자 관계만 나빠지고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필자의 경우 이 문제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한 고전음악 아니면 멘트가 없는 프로, 또는 멘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방송을 듣는 것이 공부에 덜 방해 받을 것이라는 걸 제시했고 아이도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4. 평온을 비는 마음 : 자녀가 비록 부모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평온한 마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녀와의 대화법은 미국 고든박사의 P.E.T 이론을 중심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이론의 근본은 자녀와 부모의 평등한 민주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고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한다면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그런 가정에서 대화로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정진 기자〉

병자년 쥐에 관한 속담

올해는 열두 띠 중의 첫째인 쥐띠해이다. 징그럽고 병을 옮기는 나쁜 짐승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생활을 같이한 것이 또한 쥐의 역사이다. 쥐에 관한 속담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어떨까.

- 고양이 쥐 걱정한다 - 위선적인 행위에 대한 비유
- 곳간 쥐는 쌀 고마운 줄 모른다 - 풍부해서 귀한줄을 모를 때 쓰는 비유
- 나라에는 도둑이 있고 집안에는 쥐가 있다 - 쥐처럼 훔치는 인간도둑을 이룰 때 쓰는 비유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뜻
- 물에 빠진 생쥐 같다 - 물에 젖은 것이 후줄근한 모습일 때의 비유
- 약기는 생쥐 - 생쥐는 재빠르고 약삭빠르기에 그렇게 약은 사람을 비유
- 쥐가 놀고 간(자고 간) 얼굴- 얼굴이 지저분한 상태
-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 곳은 일만 있는 곳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 쥐구멍에 홍살문 세우기(쥐구멍으로 소 몰라고 한다) -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쓰는 말
- 쥐구멍 찾는다 - 처지가 어색하여 도망하고 싶을 때를 이르는 말
- 쥐도 궁하면 고양이로 문다 - 막판에 몰리면 죽음을 무릅쓰는 뜻
- 쥐빨도 모른다 -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한다
- 쥐 소금 먹듯 한다 - 조금씩 조금씩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줄어든다는 말
- 쥐알봉수 - 피가 많고 약은 사람을 비웃어 일컫는 말
- 쥐약 먹은 놈 같다 - 이상한 행동거지를 하는 사람을 이룰 때의 표현
- 쥐약 먹인다 -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용해 먹을 때 씀
- 쥐 죽은 듯하다 - 매우 조용한 상황을 이르는 말
- 창고에 들어간 쥐 - 제철을 만난 듯 일이 잘 풀릴 때의 상황을 이르는 말

96년 전국 독서교육 강연회

어린이 도서 연구회는 전국 10대 도시의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강연회 및 좋은 책 전시회를 연다.

1월15일: 독서교육의 방향(곽정란)
참사를 가꾸는 책읽기 지도(이오덕)

1월16일: 옛이야기 어떻게 가르칠까(최내옥)
어떤것이 좋은 동화일까(김중철)

1월17일: 책읽고 이렇게 해보세요1(김경숙)
책읽고 이렇게 해보세요2(오춘식)

1월18일: 독서지도 수업안 짜기(김옥성)
여러가지 독서 감상문 쓰기(오길주)

1월19일: 동화읽고 인형극 하기(박남희)
독서교육 토론 및 질의 응답(이주영)

문의: 733-4992, 737-9510

지역장소 문의: 부산 YMCA(민들레 문화원 051-331-8799)

대구 영남일보(이영태 053-566-4799)

김포(책나눔 0341-82-3344)

고양 우리글 마을(0344-916-1100)

쑥 • 쑥 • 문 • 고 • 8

우리가 110-080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9-13 730-1273(영입부)

창작
동화

말더듬이 원식이



우리들의 친구 원식은 말뚝꾸러기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참 곱고 어린 친구

하지만 원식은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어 주고 사랑해 주는 선생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말까지 더듬어 놀 때 돌림을 받는
입니다. 단지 아무도 그것을 몰라줄 뿐입니다.



김일광 창작 동화집
값 4800원, 176쪽
.....

늘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세상을 꿈꾸며, 그런 동화를 그리고 안타까워하며 애쓰는 김일광 동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학부모, 자녀 위한 1월 행사 안내

알림

강서남지회

독서방과 글쓰기, 종이접기 교실
· 일시: 1월 9일~ 2월 1일
10:30~12:00
화, 목-독서방
화-글쓰기 (강사:김금란)
목-종이접기 (강사:최영란)
·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 대상:유치원, 초등학생
· 참가비:15,000
· 문의:634-6508

강서남지회

새해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강사:이정진)
· 일시:1월 18일 10:30
· 장소:신촌 사무실
· 문의:306-5003 (이정남)
634-6508

부산지부

어린이 역사기행-남도 1번지
· 일시:1월 23일~ 25일
· 대상:초등 3~6학년 80명
· 회비:75,000 (회원)
85,000 (비회원)
· 문의:051) 868-9906 (조명숙)
051) 246-1618

여천지회

아이들과 함께하는 종이접기
· 일시:1월 18일 10:00~12:00
· 장소:열린교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동요부르기
· 일시:1월 25일 10:00~12:00
· 장소:열린교실
· 문의:0662) 84-5116 (조경란)

울산지회

제14회 어린이 역사기행
· 장소:충남일원 (부여, 서산, 예산 태안, 안면도)
· 대상:초등 4~6학년

익산지회

노래소모임
· 일시:매주 토요일 10:00
· 장소:신동성당 앞 아이피아노
· 문의:0653) 841-3938

동북부지회

가족신문만들기 (도움말:윤지희)
· 일시:1월 25일 11:00~1:00
· 장소:상계주공 4단지 노인정
· 준비물:A4용지나 도화지, 싸인펜, 볼펜, 사진, 가족신문에 실을 글

만화 상영회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동양권 만화 2편을 상영합니다. 디즈니 만화와 서양 만화와는 다른 동양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세요.

(어린이의 TV 시청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강의도 함께 예정입니다)

제목: 이웃의 토토리 (일본)
- 1월 25일
피리부는 소년 (중국)
- 1월 26일

· 시간:11시 ~ 1시
·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 대상:초등 4, 5, 6학년
· 참가비:1,000원
· 문의:634-6508 (홍수영)

철학 그림책 3권(마루별출판사)

4~8세의 유아 수준에 맞게 엮은 철학 그림책. 다른 그림책에서는 다루지 못한 입양, 전쟁, 이별, 분단, 운명 등에 관한 깊이 있는 문제를 다루었다.

〈문이〉 라스칼 글·소피 그림

벨기에 입양 후 그림책 화가로 성공한 한국 소녀 소피의 자전적 이야기. 그림책 작가인 남편 라스칼의 글에 소피가 그림을 그렸다. 원제는 「MO-UN」으로 소피의 한국성이 '문'이라서 붙여진 이름.

〈시냇물 저쪽〉 엘즈비에타 글, 그림

전쟁으로 헤어지게 된 어린 단짝 금강이와 초롱이의 이야

기.

어린 주인공 금강이와 초롱이의 눈을 통해 전쟁의 무모함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는 오늘날 우리아이들에게 적절한 이야기.

〈빨간아기토끼〉 라스칼글 클로드듀보이 그림.

우리가 책으로 읽어 알고 있는 '빨간 모자'의 이야기. 늑대에게 잡아 먹히는 할머니와 빨간모자의 이야기를 빨간 토끼와 빨간모자 두 주인공이 다시 만들어간다. 이 글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뒤집기를 통해 쉽고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1)

학교운영위원회 무엇일까요?

* 학교운영위원회란 어떤 것일까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 집중되어왔던 학교운영의 결정권을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민주적으로 협의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논의합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방치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학교가 이전보다 더 제멋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교육부의 지침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운동에서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여러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 교육관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학교장들은 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학교장이 선발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합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이라도 학교장이 거부하면 시행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실시방향이 갈수록 개악되어서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원회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적용범위와 실시는 언제일까요?

교육부에서는 국공립 초, 중등학교에 설치하고,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년 이하의 소규모 학교와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및 산업체 부설학교 등에서는 사정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립학교는 자체에서 결정하며 설치할 경우 구성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성 등은 국공립에 준하고, 기능·운영 등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95년 2학기에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실험운영하며, 9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98학년도까지 전면 실시한다고 합니다.

(교육자치란 교육의 주체로서 단위학교에서부터 국가교육에 대해 중요한 결정권을 갖게 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중요한 의결기구로 자리매김 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연재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의 참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이오덕·권정생·위기철·신경림·이현주·윤기현·지동환·강정규·이재복·임길택

한국 아동문학을 빛낸 작가들 그들이 바로 <산하어린이> 작가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급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는 그 동안 서울 YWCA, 서울 YMCA, 문화체육부, 어린이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마산 YWCA, 좋은 책 만들기 운동 연합회, 창원 YWCA, 군산 YMCA, 어린이 문화 진흥회, 부산 YW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 있는 책입니다.

▶ 생애이야기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11 차들이는 환경박사 김현아
17 너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진
17 비오는 날 일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18 공부하는 왜 해야 하는 한 교실 어린이
34 혼자서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35 남이다 코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41 나뭇잎 교실 윤재규
51 천년 기념을 함께한 나은경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연
72 이오덕 글 이야기 이오덕
▶ 과학이야기
38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한준
81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제창작회

▶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3 오창영

62 끈질기게 물고 놓이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63 꿀벌이야기 파고트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64 악취잡이 달라들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역사이야기
3 4 5 임제정과 일곱형제들 1·2·3 김우일
31 서울 600년 이야기 김근태
50 흥미로운 국보 여행 배봉기
52 53 꼬마 단군 1·2 정우상
58 59 60 소년 독립군 주홍이 1·2·3 김정민
83 신기한 세계여행 김윤정
85 신비한 지구탐험 김윤정
▶ 옛날이야기
7 전태일 위기철

▶ 운동주 정진주

49 신채호 김사형
73 목수의 아들 예수 최선주
▶ 장작동화
1 참나무 선생님 박상규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8 여우여우여우 뭐 하니 김 목
9 하느님의 눈을 전정생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13 신나는 교실 윤재규
14 바보와 바보 박상규
15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철
19 달고마이 이상권
20 하루나라 하루왕 이준연

▶ 상계동 아이들 노경실

22 따뜻한 사람 박상규
23 커다란 풍선 장수 이재복·이현주 외
24 도둑 마을 장문식
25 최초의리와 훈장 윤기현
26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27 아기 장수 조호상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권
29 통일은 참 쉽다 동시·동화
30 섬마을 아이들 신중행
32 아이쿠나 호랑이 윤재규
37 어리석은 독재자 윤기현
44 친구 잃는 모험 이재복
45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 작다고 짧다고 큰코 다쳐요 이재복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48 김철지의 매주풍 이재복
54 팔복할머니와 늑대 지동환
55 사장이 된 불쌍장수 박상규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57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권정생
65 피리부는 소년 이주홍
66 67 서울에 온 어린 왕자 1·2 오봉욱
68 느릅골 아이들 임길택
70 71 큰소나무 1·2 강정규
76 환동이의 검둥이 이오덕·권정생 외
79 풀귀신 아버지 김학철 외
80 오앗꽃을 넣은 편지 권선자 외

● 새로나온 책 산하어린이 81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재미있는 이야기가 달력처럼 펴
있는 이야기 달력

책을 펼치면 달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달력으로 새로운 놀이·공부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달마다, 학기마다, 학년마다 알찬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교육문제창작회 글 / 최미숙 그림/값 4,000원

도서출판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8-10
산하 TEL 392-7641 FAX 313-2582